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선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 그동안 사순절 연속 기도 중에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 저녁 7시에는 부활절 찬양 잔치로 모입니다.
- 부활절을 앞두고 찬양곡 저작권 라이선스 협회에 가입하였습니다.
- 4월1일(월)은 사랑방공동체학교 32주년 개교기념일로 휴업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멧쟁이학교 4학년 학생들이 해외문화체험 수업을 위해 4월 1일(월), 최기찬 전도사님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 성서일기 범위가 오늘부터 이사야로 바뀝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다 함 께

강단을 꽃으로 : 정연갑 · 이윤순 집사 가정 (부활절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13 호

2024년 3월 3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합시다

종종 어린이들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몇 살이에요?" 대답을 잘 해주어야 하지만 나이를 세지 않은지 오래되어 선뜻 정확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음.. 500살?" 어린이들은 일년 중 자신의 생일을 가장 특별한 날로 기다리는데 어른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정확한 나이도 잊고 삽니다. 똑같은 생일을 기다리는 다른 마음,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킨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는 모습까지 모두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따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신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향료를 준비하여 무덤으로 가지고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당황합니다. 그 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한 제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고, 베드로만 무덤으로 가 살펴보았으나 이상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며 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들리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았고, 머리에 남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관

해 세번째로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서 우리 중 누구에게 더 높은 자리를 주실건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이 아닌 내가 차지할 자리, 나의 받게 될 몫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중 열 명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보고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새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 가나안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흘렀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감격스런 날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있나요? 무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낸 여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감격의 말씀들, 부어주셨던 은혜들, 넘치는 사랑에 흐르는 눈물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뼈아픈 회개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의 삶을 통해, 사랑방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주간의 말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

<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175 216 / 322

기도 : 이윤순 집사

성경 : 마태복음 25장

제목 :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자

1-13 하늘나라는 신랑을 맞는 열처녀와 같다.

해석: 하늘나라는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들어 갈 수 있다.

적용: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자.

14-30 하늘나라는 주인의 재산을 맡은 종과 같다.

해석: 하늘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일은 하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

적용: 하늘나라를 위해 신실한 종이 되자.

내가 가진 재능, 능력은 하늘나라를 알리는데 사용하자.

31-46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해석: 우리가 가진 것(삶의 환경, 능력)은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한명이라도 도와야 한다. 그것이 인자가 칭찬하는 것이다.

적용: 영원한 생명을 얻자.

주위에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리보고 돕자.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보 글을 써보는 건 처음이라 막연한 심정이지만 내일 미국 문화 체험으로 출국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다짐들을 적고 저의 글을 써 볼 기회가 생겨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짧지 않은 두 달 동안을 살다 온다는 것은 참 기대가 되고 설렘이 가득합니다. 물론 내심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기에 잘 다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번 미국 문화 체험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시키는 것, 여행 기간 마주칠 일들,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년끼리 더 가까워지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말에도 헤어지지 않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더 알아가고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 기대해 봅니다. 생활하며 부딪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서로 배려하며 상황을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이끌어 간다면 모두가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서 배우고 얻어오고 싶은 것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소중한 추억, 학년과의 더욱 돈독한 관계, 영어를 많이 배워오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적어본다면 요리입니다.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신다는 Mrs Kim께 많이 배워서 오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덜 준비된 것 같지만 다 채워지지 않은 종이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더 많듯이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출발하여 그곳에서 경험과 추억, 배움과 성장으로 가득 채워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침 오늘은 기쁜 부활절이네요. 모두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은혜 넘치는 주일되시길 바랍니다!

푸른꿈사랑방 진나우 학생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베드로전서 1 : 3-4 인도자
25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시 편 32 : 5 인도자
160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요한복음 20 : 1-17 설교자
167장, 주 사셨다, 나 깊이 잠기겠네 사랑방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219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채영대 장지영 / 봉헌위원 : 채영대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를 형제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 누이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텅 빈 무덤만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와서 빈 무덤만 확인하고 이상하게 여기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다가 천사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최선.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가장 크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 말씀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고 부활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마리아의 최선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목격자이자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선은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최선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최선이 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현숙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이번 주에는 다윗이야기 활동을 했습니다. 어린 다윗이 커다란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를 재연해봤습니다. 엘라골짜기에서 돌을 줍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나아가 말씀을 외웠습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다윗이 된 친구들은 아주 용감하게 골리앗을 돌로 무찔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부족해보이나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할 것이 없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3월에는 건강검진을 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안과와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는 큰 목소리로 노는 친구들이지만 병원에서는 조용하고, 의젓하게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몸이 근질근질하지만 끝까지 잘 참고, 검사 받은 친구들은 다음 날에 서로를 칭찬해줬습니다.

3월이 지나기 전에 냉이를 캐습니다. 다른 풀과 헷갈리기도 했지만 모양과 냄새로 구분하는 것을 배우고 열심히 냉이를 캐습니다. 금요일 오후 내내 냉이를 캔 결과, 집에 냉이를 한 봉지씩 가져갔습니다. 각각 냉이파스타, 냉이전, 냉이국과 나물을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봄을 시샘하듯 으스스한 바람과 흐린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화요일 새벽에는 눈이 내려 걱정을 했지만 눈깜짝 할 사이에 사라져 아쉬워 했습니다. 날씨가 또 변화하여 따뜻한 며칠을 보내고 또 황사가 찾아와 마스크를 껴줍니다. 한주간 참 많은 날씨를 경험 하였습니다. 그런 날씨 변화 속에도 작년에 심은 개나리가 살며시 새싹을 틔우고, 산수유는 꽃망울을 터뜨리고, 귀여운 수선화도 활짝 웃으며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로 만물이 아름답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도서부 미화부 시설관리부 체육부 부서장을 뽑았습니다. 한 학기동안 학교의 여러 곳을 도와주는 손과 발이 되길 기대합니다.

어린이학교 선생님들도 바쁘지만 아이들도 참 바쁩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필라테스 시간에 일찍 가서 매트도 내려서 준비해야하고, 쉬는 시간 축구도 해야 하고, 짬시간 숙제도 해야 하고~ 바쁘지만 행복하다고 하며 숙제를 줄여 달라는 눈빛을 발사하기도 합니다. ^^

4월1일 월요일은 개교기념일로 쉽니다. 2일(수) 구충제를 복용합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고난주간을 이어가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멋쟁이 자치회에서 오전 금식을 결의했기에, 아침식사와 오전 간식을 식탁에서 치웠습니다. 배는 조금 고프지만, 성경말씀과 영화<부활>, 세족예배 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기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월요일에 4학년이 해외문화체험 과정을 위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때를 위해 여러 준비를 해온만큼, 가서 특별하고도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기찬 교감선생님과 인솔하에 다녀올 4학년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다리던 부활절입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의 일원의 자격으로 [부활절 퍼레이드]에 참여하였습니다. 시청역-광화문광장 부근을 행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활절을 축하하는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것은 덮어두더라도, 부활절의 의미와 기쁨이 멋쟁이들과 온 세상에 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월요일은 개교기념일로 휴식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대안학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랑방공동체 학교의 생일임에 자부심을 가지며 부활절 일정에 쌓인 피로를 잘 풀고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내일이 부활절이다

아침에 일찍 눈이 떠졌다. 내일이 부활절이고, 오늘은 준비하는 날이다.-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을 거다-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준비는 부활절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한다. 유리창도 닦고, 상도 닦고, 의자 뒤쪽도 열심히 닦고, 먼지를 찾아 찾아 구석구석 청소하는 날이다. -방석 빨래는 주간 중에 다 하신 것 같다. 난 청소에서 빠져서 음식을 준비하는 팀에서 일하리라.

청소만큼이나 이 일도 재미있는 일이다. 무엇을 할까-메뉴는 몇 주 전부터 입을 맞춰온 터라 달리 생각을 더 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먹을 수 있을까'하는 공상으로 생각이 자꾸자꾸 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달려만 가는 생각 때문에 함께 하는 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덜 힘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다시 생각이 마구 달린다. 근데 문제는 생각만 달린다는 거다. 손발이 생각만큼 달리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이건 또 정말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침 일찍 일어나 장보기를 하는 거다. '장보기'는 힘세고 운전 잘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주특기다. 힘찬 발걸음으로 마트들을 돌고는 사온 물건을 부엌에 째~기 펼쳐 놓으니, 각 방의 대표 선수들이 모였다.-사실, 그 선수들도 원래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런데 주방에 드나들면서 어느덧 '선수'로 탈바꿈한 것이다.- 씻고, 썰고, 튀기고..('무치고'는 주일 아침 몫이다) 일사불란하고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선수들의 몸짓은 축제다-물론 난 작지 않은 몸집으로 조그맣게 한쪽에서 파를 썰거나 세척기의 물을 빼고 수돗물로 한 번 목욕시키는 일을 한다. 이렇게 두세 시간이 지나니 일이 다 끝났다. 또 하나의 기적이 만들어진 거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하루, 힘들었을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생각해 본다. 팔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노곤할 거다. 하지만 내일 아침, 부활절 아침이면 어제의 피곤함은 싹 다 사라지고 기쁜 마음으로 재재거리며 찬양하리라.

이 밤,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 복된 부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전경희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장영미 전도사

찬송 : 292장, 251장, 144장

성경 : 요한복음 4장 7~12절

말씀 :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종전 >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휴전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스라엘에게 이 결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스라엘은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종전이 아니라면 영구휴전이라도 되어서 더 이상의 민간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예수원 >

- 1) 중보기도의 사명자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기름부음이 있도록.
- 2) 82기 훈련생들이 훈련기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특히, 목요 세족예배를 통해 주님의 섬김의 본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 2) 토요일 공동체 대청소 등 부활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연속기도, 아침기도회와 정오기도회, 목요 세족 예배까지 더욱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방석을 세탁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세족 예배를 준비하는 등 공동체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식구들이 그저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보답하려 묵묵히 각자의 역할을 해내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따라 조금이라도 삶의 자리에서 섬기려는 식구들의 그 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 장영미 전도사 >